

# 연금 시장 리뷰

##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독일 경제의 기초체력- 제조업 기반 수출경쟁력이 핵심

## 퇴직연금

- 동향 :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 이슈 : 가계재무관리 전략- 가계의 재무 위치 인식과 활용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2월말 현재

##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취약가계 위험부실 증대

-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며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등 취약가계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증대
  - **가계부채 규모:**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2011년말 기준 전년대비 7.8% 증가한 912.9조원을 기록
  - **저소득층과 고연령층 가계부채:** 경기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가계와 소득창출여력이 취약한 고연령층의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됨
-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금융 동향: 글로벌 및 국내금융시장 동반 하락

- 미 경제지표의 부진 지속, 프랑스 정치혼란에 대한 우려와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들의 신용등급 추가 하락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시장 모두 동반 하락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4월 3일 3.35%에서 4월 23일 현재 3.47%로 소폭 하락
  - 원/달러 환율은 4월 3일 1,122.5원에서 4월 23일 현재 1,140.5원으로 18원 상승
  - 코스피 지수도 유로존 리스크 상승과 미·중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4월 3일 2,049.3에서 4월 23일 1,972.6으로 76.7p 하락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4월3일	4월23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0.3	6.2	3.6	4.2	3.4	3.4	3.4	-	-
	산업생산(%)	-0.1	16.2	7.0	10.6	7.2	5.3	5.3	14.8	-
	소비자물가(%)	2.8	2.9	4.0	4.5	4.2	4.8	4.2	3.1	2.6
	실업률(%)	3.6	3.7	3.4	4.2	3.4	3.1	3.0	4.2	3.7
	경상수지(억달러)	327.9	282.1	276.5	26.1	54.9	69.0	126.7	6.4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4.04	3.72	3.62	3.80	3.68	3.60	3.41	3.58	3.47
	원/달러(원)	1,276.4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22.5	1,140.5
	코스피지수(P)	1,682.8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2,049.3	1,972.6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는 4월3일자는 2월, 4월 23일자는 3월 수치임.

## □ 경제 이슈: 위기 속에 더 빛나는 독일 경제의 기초체력

### - 제조업 기반 수출경쟁력이 핵심

#### 1. 독일, 유럽의 파워하우스로 부상

유로존 재정위기가 그리스의 채권탕감 등의 위기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경제규모 5 위인 스페인 등 경제규모가 큰 나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도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다. 반면, 독일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명실상부한 유럽 내 절대강자(Power house)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2. 독일, 파워하우스 부상의 비결

독일의 국가경쟁력이 유지되는 비결을 경제, 재정, 금융, 정치 등 4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확보'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에 독일은 높은 수출경쟁력과 '고용기적'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독일의 높은 경제성과는 노동비용 상승세가 유럽 주요국 대비 낮아 기업의 경쟁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2009 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 위 품목 수 852 개)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수출이 2011 년에는 1.4 조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둘째, 재정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 점'이다. 독일은 국가부채와 민간부채를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안정적 관리는 'Agenda2010'을 통해 2004 년 이래 꾸준히 실시해온 경제 구조개혁과 가계의 높은 저축률 및 안정된 주택가격 관리 등이 버블 형성을 억제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적 측면으로는 '대외충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다. 2008 년 이후 지속된 위기로 프랑스, 영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된 반면, 독일 채권은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는 독일의 경제 건전성 대비 PIIGS 국가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 위험노출액)가 상대적으로 적고, 대외 충격에 대한 위기 방어 능력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안정되고 신뢰받는 정치 체계 구축'이다. 독일은 낮은 부패, 투명성 및 혁신 등을 통해 프랑스, 영국에 비해 안정된 정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독·프·영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新 재정협약이

합의됨에 따라 독일의 유로존에 대한 영향력도 커졌다. 향후에도 독일은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 가장 많은 29.07%의 재원을 부담해야 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한 위기국가들 지원도 요구받고 있어 독일의 정치적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 3. 시사점

독일은 높은 수출 경쟁력과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속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프랑스, 영국과의 차별성이 더욱 커져 유럽 내 절대강자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빈번한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향후 복지 지출 확대에 있어 재정 여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 요인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체계화 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금융 거래세 도입에도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02-2072-6217, chjss@hri.co.kr)

**□ 동향: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문)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보세요!**

-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적립금 조회
  - 현재 운용 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 및 만기 확인
  - 운용 상품의 변경(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씩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가입자 교육은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집합(방문)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권리인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약이전수수료: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수수료 형태: 면제, 정액식(100,000원), 정률식(1.0%) 등
- ※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약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이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금, 원리금보장ELS, 이율보증형보험 등이 있음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1년, 2년 등) 및 금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혹시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나요?

\* 자동운용상품이란? 가입자가 본인이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운용상품(주로 원리금보장 상품)

-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확정기여형(DC형) 및 기업형IRA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자동운용상품에 투자합니다.
- 현재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여부와 자동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을 꼭 확인하여 본인의 소중한 은퇴자산을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 개인형 IRA에 가입했을 때, 과세이연 효과는 무엇인가요?

- 개인형 IRA는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계좌입니다.
-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를 납부합니다. 이를 과세이연효과라고 합니다.
- ※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퇴직급여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기업형 IRA	개인형 IRA
연금 수급요건	- 연령 : 55세 이상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 연령 : 55세 이상 - 연금수급 : 5년 이상
일시금 수급요건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퇴직급여 수령 시, 관련 세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으로 수령 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단,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종결짓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일시금 수령액에 정률공제(40%, 2012년 기준) 및 근속년수공제를 한 후 근속년수를 감안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세액산출방법(연분연승법)? 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뒤에 동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근속년수)× 세율]× 근속년수

○ DC형 가입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부담하는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판매

-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한 번에 4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12.7.26부터 변화되는 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개정('12.7.26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의 동시 가입 가능

- 기존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별로 DB형 및 DC형, 2개의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비율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괄 적용받습니다.)

②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추가 납입 가능

-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 집니다.
- 자영업자는 2017.8월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DB형 및 DC형 가입자의 추가 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됩니다. (연간 납입한도 1천 2백만원)

③ 사내유보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제한

-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이 제한됩니다.
- 개정 법안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입법예고안)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③ 근로자가 희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④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 이슈: 가계재무관리 전략- 가계의 재무 위치 인식과 활용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금융의 발달은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더욱 가정 경제를 어렵게 느끼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시기에는 더 용이한 관리를 위해 적절한 도구가 더욱 필요하다.

가계의 재무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가계 재무관리 활동은 가계의 특성이 유기체와 같이 살아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유지관리활동(keeping management activities)”, “성장관리 활동(growth management activities)”, 그리고 “문제해결 활동(problem solving activities)”에 관한 3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인식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계재무관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려해야 할 개인적 차원의 주요 전략 요소는 재무관 (Financial Value) 재무적 위치(Financial Stage), 생애 단계(Stage of Life Cycle), 삶의 방식(Life Style) 등 4 요소이다. 이 4 가지 요소 중 “재무적 위치”는 다른 3 가지 요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계의 재무적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3 가지 요소는 영향 인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계관리를 위한 변화관리의 핵심적인 전략요소가 된다. 때문에 각 가계의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재무 전략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계의 경제 활동의 결과인 현재의 재무상태 즉, “가계의 재무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계의 재무관리를 위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가계 재무 위치(Status)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현금흐름과 자산상태”에 따라 “가계의 재무단계”를 “부채의존단계, 소득의존단계, 자산생성단계, 자산확장단계, 재무독립단계”의 5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재무적 특징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재무적 관심사와 당면한 문제도 다르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아주 다르다.

가계의 재무단계를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뿐 아니라 계속되는 가계의 재무적 활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외부의 큰 환경 변화가 없는 한 향후 어느 단계로 위치하게 될 지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계재무단계와 위치인식”의 활용성은 가계가 나아가고 싶은 단계에 위치할 즉, 가계의 재무적 목표 달성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성장과 유지관리,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방법을 얻는데 용이하다.

현재의 가정의 재무상태는 외부적 상황을 포함해 매일의 반복되는 선택과 습관에 의해 나타난다. 우리는 가계의 5가지 재무단계를 가계의 재정적 성장에 대한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재무단계는 개인의 선택적인 상황이나 일시적인 상태일 수 있는 등 예외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가정에 충분히 의미 있는 “재무위치 인식”을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가족의 생애단계와 라이프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I. 가계의 재무관리 활동과 필요 재무관리 능력

### ○ 가계의 재무관리 활동

거의 모든 가계는 “가족구성원이 살아가는 나날을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을 통해 크게 3가지의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 첫번째 : 가계의 유지관리 활동(Keeping management activities)  
가정의 경제 활동 단위로서의 지속을 위한 활동으로서 가족이 일정한 생활 수준 이상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여기에 속하는 활동은 인적 자원 또는 노동력 개발, 소득능력 유지와 활용, 그리고 자원의 활용과 유지를 위한 지속 관리와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올바르게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 즉, 예산수립, 자원분배 등 수지균형관리 등이다.
- 두번째 : 가계의 성장관리 활동( Growth management activities)  
가계의 자원의 활용과 수입, 지출의 관리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가계 내의 “재무적 축적”인 자산(assets)과 소득의 증가를 위한 활동을 말하며 그 활동의 결과로 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 세번째 : 문제해결 활동(Problem solving Activities)  
앞서 열거한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가계재무활동을 하는 동안 다양한 문제와 난점들이 가정 안 밖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해결 활동은 이 문제에 대한 예측과 반응으로서의 활동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정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능력부족의 문제, 자원(인적/물질적)의 변질/변화 등의 내부적 문제와 사회, 경제, 금융 등의 변화로 인한 법과 제도의 변경 등 기타 외부적 문제로 나누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활동과 해결 활동을 포함한다.

### ○ 가계 재무관리 활동의 결과와 성격

가계 재무관리의 활동의 결과로 가족은 생계를 유지하고 재무적 만족을 얻고 이웃을 돌보고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경제의 주체요 한 단위로서 기여하게 된다. 또한 가정 안 나타난 결과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가정의 재무관리 활동을 일정기간 동안 가계수지와 특정 시점의 자산을 기록(숫자와 표로)하면 가계의 현금흐름표와 재무상태표로 나타난다. 이것을 가계의 재무제표라고 하며 가계의 재무적 활동의 결과를 데이터로 나타낸 것이므로 일정기간 기록과 관찰을 통하여 가계성장을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활동은 끊임없이 내외부의 도전과 그 자신의 선택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성장하는 유기체와 같다. 살아있고 건강한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이 있는데 가정의 재무적 활동도 이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흐름이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

○ **가계재무관리의 출발점**

- 가계 재무관리 활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가정의 재무적인 활동의 방법과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바로 가계의 “재무적 위치”(financial stage) 에 대한 인식이다. 가계의 재무적 위치에 대한 인식은 가계 재무관리의 시작 점인 것이다.<sup>2</sup>

**II. 가계 재무단계와 위치 인식**

○ **가계의 재무단계(financial stages)**

가계재무단계는 가계의 재무제표(현금흐름표와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흐름 상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각 단계를 명칭 하였다. 즉, 가계재무단계 구분의 주요 결정 요인은 “재무제표에 표현되는 현금흐름”이며 그림 1)은 가계의 재무단계를 5 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가계재무의 단계는 “현재의 재무적 상황”을 찾기 위한 도구로서 사회계층이나 계층의 소속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의 재무적 상황은 특정 가정에게 특정 단계에 속하는 “결정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의 활동에 의해 나타난 현재의 재무적 상황을 나타낸다.

그림1) 가계재무 상태에 따른 가계재무 단계



각 단계는 주요하고 핵심적인 재무적 특징들로 구분되고 재무적 단계는 최하위상태의 재무상태에서 한 단계씩 상위 개념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최상위 단계까지 5 단계로 구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가계재무단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각 재무단계의 성장모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재무단계 성장모형을 통하여 각 재무단계의 주요한 특징과 원인, 그리고 재무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면적이고 구체적인 나열은 가계의 재무상황에 대해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을 제시하게 되어 가계재무관리의 3 가지 활동측면에서의 이슈인 “유지, 성장, 문제해결”에 대해 가정이 균형 있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

<sup>2</sup> 가계재무설계는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대한가정학회지:wp41rnjs1호 2003, 성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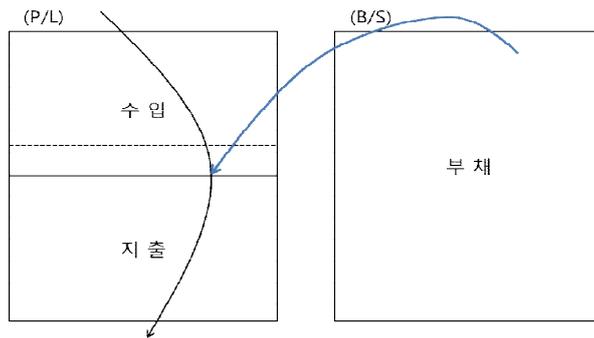
○ 가계 재무 5 단계의 이해

- 1 단계 : 부채의존 단계(Debit Dependence Stage)

1) 부채의존단계의 현금흐름

현금흐름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지출의 불균형 상태로서 지출을 위해 부족한 수입은 외부 지원 즉, 부채나 도움을 통해 조달된다.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의 상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진단된다. "소득이 너무 작든지", "지출이 너무 많든지"이다.

그림 2) 1 단계의 가계 재무 상태 - 부채 의존 단계



2) 주요 재무적 특징

수입	주로 소득하위 20%이내에서 많이 발생.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문제' <sup>3</sup> 가 대부분이다. 소득원이 하나이거나 노동소득에 의존되어 있다.
지출	의무적인 비용(세금, 공과금, 자동차보험 등 법적 지출)의 결제가 제날짜에 지불되지 않는다. 지출은 거의 필수생활비계정으로 지출된다. 생활비 지불을 위해 대출을 받아 사용 한다.
자산부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자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신용	낮은 신용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타	빈곤상태 <sup>4</sup> 라고 부르는 단계로서 삶은 생존의 문제다. 주요 감정은 '부족감'과 '무력감'이다.

<sup>3</sup>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문제 : 빈곤한 상태에 이르는 원인이 "과소비"나 "게으름"의 문제라는 접근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문제"라는 관점은 연구된 바가 많이 있다. 구인회(2002)는 한국노동패널 1998-1999를 이용하여 비노 인가구 빈곤이행의 압도적 비율이 가구근로소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홍경준(2004)은 한국 노동패널1998-2002 자료를 이용한 빈곤이행과 관련된 사건 분석에서 가구주나 가구규모 변화와 같은 인구 학적 변화와 이전소득액의 변화가 빈곤진입과 빈곤 탈출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을 제시한 바 있다.

<sup>4</sup> 빈곤 : 한 해 가구당 총 소득액을 기준으로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빈곤"상태라고 측정할 수 있다. "개인이 소속한 가구의 총소득이 한 해에 최저생계비 이상이였다가 다음 해에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개인은 빈곤에 진입한 것으로 분류된다. 또 개인이 소속한 가구의 총 소득이 한 해에 최저 생계비 미만이었다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상승하면 그 개인은 빈곤을 탈출한 것으로 분류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에 진입한 사람들의 4분의 3정도가 2년 안에 빈곤을 탈피하는 정도로 매우 활발한 빈곤탈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년 이상의 장기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0%를 차지하며 10년 이상의 최장기 빈곤층도 25%를 넘어서나. 장기빈곤층의 대표적 집단은 노인가구이다. 장기빈곤의 경향이 강한 다음집단은 비노인 여성가구주 가구이다.(구인회, 서울대학교,빈곤의 동태적 분석, 2005)

3) 이슈

사회적 지원, 의지의 사용, 수입능력개발, 지출통제, 금융조정, 파산, 등.

4) 도움 : 누가 이들을 도울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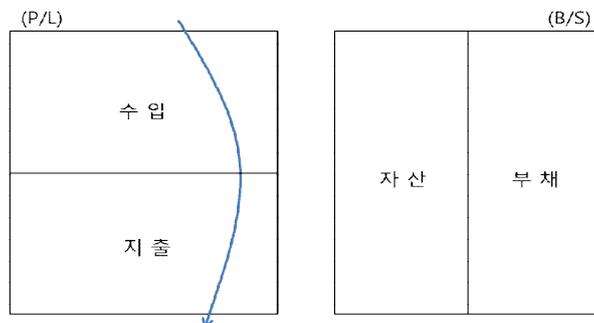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1 단계에 누군가 속하게 되는 원인은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과 같은 개인적인 잘못된 습관이 원인인 경우 외에도 사회 환경적- 교육의 불평등, 산업/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한 실직 및 소득감소 등- 원인과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 산업과 금융에 대한 무지와 경험 미숙으로 인한 투자나 사업 실패 등과 같은 개인적 원인 등 다양하다. 그 원인은 다를 지라도 피해와 처하게 되는 가정 내의 재무적 환경은 자유로운 현대 사회에서도 재정적으로는 노예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3 단계~5 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구제하기 위한 지원을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 2 단계: 소득 의존 단계(Income Dependence Stage)

1) 소득의존단계의 현금흐름

현금흐름표상 수입과 지출이 같다. 모든 지출이 전적으로 소득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버는 것을 모두 지출하므로 저축은 없거나 거의 없어 현금흐름표상 나타나지 않거나 저축이 있더라도 기간과 양에 있어서 무의미한 정도다. 자산에 대해 무소유에 가깝거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플러스마이너스제로인 상태이다.

그림 3) 2 단계 가계재무상태 - 소득 의존 단계



2) 주요 재무적 특징

소득	소득원이 하나이거나 노동소득에 의존되어 있다.
지출	생활수준은 가정에 기본적인 필수품이 공급되는 수준이다. 생활은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지만 저축은 못하고 있다. 다음 급여 때까지 현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카드를 종종 써야 한다. 결제할 신용카드액이 그 달 수입의 한도 내에서 사용된다.
자산부채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산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신용	대체로 중위 이하의 신용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타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단계이다.

3)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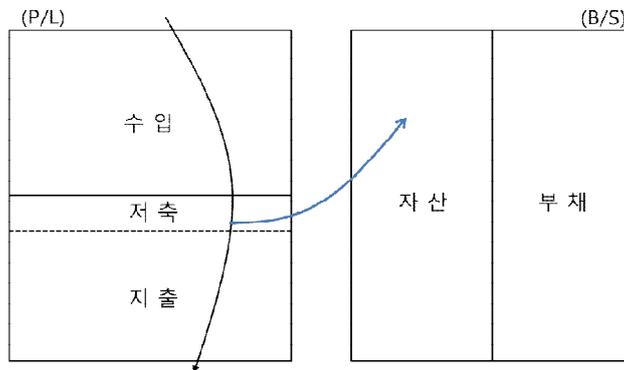
비상자금, 지출통제, 수입능력개발, 재무원칙 수립, 저축시작, 부채상환계획 등이 주요한 이슈이다. 부채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경계하고 부채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부채가 없는 경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축을 시작하여 여유 자금이 나 투자할 종자돈을 만드는 것이 하위 단계로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대안이 된다.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추가적 소득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된다. 저축 없이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사용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부채에 의존하는 1 단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필요한 교육과 조언자를 찾아 조언 받는 것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행동이다.

- 3 단계 : 자산 생성 단계(Asset Dependence Stage)

1) 자산생성단계의 현금흐름

3 단계는 현금흐름표상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잉여금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수입에서 저축을 통하여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잉여금의 지속적 발생으로 새로운 자산이 생성된다. 그러나 아직 자산에서 의미 있는 소득이 발생되기 전 상태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4 단계로 이행되는 긍정적 단계이다.

그림 4) 3 단계 가계재무상태 - 자산 생성 단계



2) 주요 재무적 특징

소 득	안정적인 소득이 주요 특징이다. 노동소득 외에 자산소득인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원이 하나 혹은 둘 이상 이지만 주소득은 여전히 노동소득의 비중이 높다.
지 출	생활비를 쓰고도 잉여금이 발생한다. 순지출이 필수생활비 외에도 자기개발비, 건강관리비, 여가비 등이 안정적으로 지출되며 균형 잡힌 지출계정을 보인다. 매달 담보대출과 자동차할부, 기타 대출에 대해 매달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활용이 늘고 있다.
자산부채	부채가 줄어들고 있으며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
신 용	비교적 우수한 신용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 타	재정적으로 관리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험계획과 미래에 대한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다.

3)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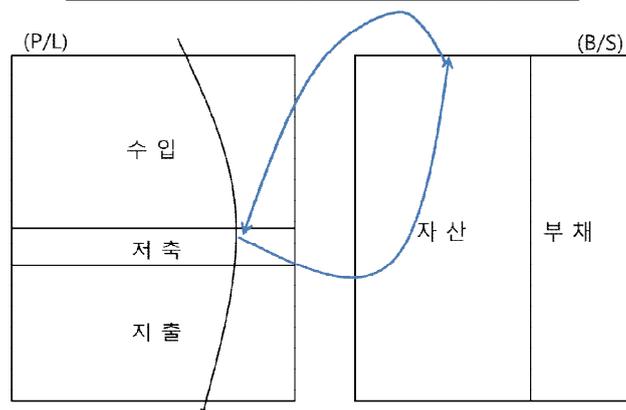
검소한 생활, 부채상환, 보험계획, 금융/투자 교육, 미래재무설계 등이 이슈이다. 부채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부채를 상환한다. 자동적으로 저축/투자할 수 있도록 "수입에서 일정금액을 떼어 저축하도록 한다. 현명한 저축/투자를 위해 반드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적절한 훈련을 병행하라. 늘어난 소득에 비해 지출을 늘이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준다.

- 4 단계 : 자산의 확장 단계

1) 자산확장단계의 현금흐름

수입에서 자동적으로 저축되고 남는 것이 지출되며 축적된 저축액이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여 자산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산소득은 다시 저축되어 자산으로 쌓이고 있다. 부채는 전체적으로 잘 관리되어 레버리지로서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재무구조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림 5) 4 단계 가계재무상태 - 자산 확장 단계



2) 주요 재무적 특징

소득	소득원이 하나 이상으로 다양하다. 주 소득 외에 대체소득인 자산소득이 주소득의 5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출	모든 비용이 안정적으로 지불되고 있다. 지출수단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비중보다 현금결제 비중이 높다.
자산부채	저축과 투자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부채는 레버리지로서 적절히 통제되고 있으며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신용	신용은 우수하거나 매우 우수하다.
기타	재무계획 중 투자계획과 세금 계획에 관심이 많다. 교육 기회를 얻고 전문가 자문을 찾기 시작한다.

3) 이슈

지출수준, 시간관리, 절세, 교육, 기부(사회적 기여), 재무계획, 위험관리, 건강관리 등이 주요한 이슈이다. 매우 잘하고 있는 단계이나 가능한 다양한 재무관리 활동의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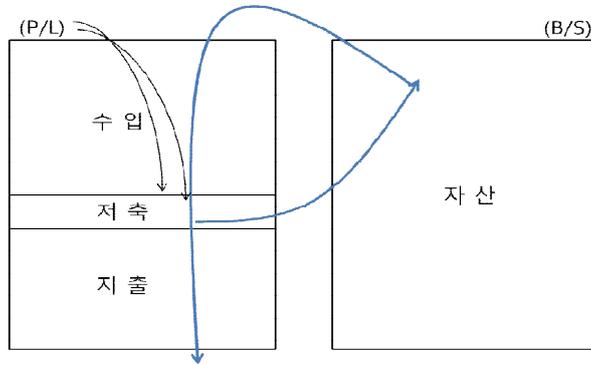
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살펴야 한다. 소득은 주소득과 대체소득, 자산소득 등이 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소득을 "passive income"이라 한다. 이 단계부터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멈추거나 줄이고 건강과 자산관리를 위한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도록 한다.

- 5 단계 : 재무 독립 단계

1) 재무독립단계의 현금흐름

노동에 의한 수입이 있을 수 있으나 자산에 의한 소득만으로도 모든 지출을 충당 가능하고 저축도 계속할 수 있어 자산으로 유입되고 있다. 부채는 자산대비 비중이 큰 의미가 없거나 아예 없다.

그림 6) 5 단계 가계재무상태 - 재무 독립 단계



2) 주요 재무적 특징

소득	소득원이 노동 소득 외에도 다양하며 자산이 주 소득이 된다. 자산소득(이자, 배당, 임대, 기타)의 총액이 가계총지출을 초과한다. 소득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
지출	지출은 카드와 신용에 의존되지 않는다. 지출의 계정과 비용이 사회적, 문화적 비용의 비중이 높다.
자산부채	자산의 증가가 물가상승율을 초과한다. 부채는 레버리지로서 적절히 통제되고 있으며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신용	신용은 우수하거나 매우 우수하다. 신용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최상위 신용단계가 아닐 수 있다.
기타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불리는 단계로서 더 많은 지식과 자산 활용에 도덕성이 요구된다.

3) 이슈

자산형성, 고정소득, 자산배분, 상속계획, 요구수익률, 사회환원, 관용이 주요 이슈이다. 이 단계에서는 평생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 갈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고정소득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 자산에 대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을 예방하

고 비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속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쓰고도 남는 돈에 대한 활용계획이다. 선한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 필연적으로 부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III. 가계재무단계의 이해와 활용

#### ○ 가계재무단계의 더 깊은 이해

가계의 5 가지 재무단계에 대한 가계의 재무적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은 가계의 재무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 위치를 인식함으로써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취해져야 할 방법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위치인식은 가계재무관리의 실제적인 시작이 된다.

그러나 각 재무단계에 대한 위치 인식은 단순히 각 단계에서 제시된 것이 다가 아니며 “가구주의 생애단계(Life Stage), 생활양식(Life Style)을 포함한 하나의 신념체계로서의 재무관(a view of financial)에 따라 각 단계의 의미를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즉, 같은 재무적 위치에 있을 지라도 개인의 상황과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 단계는 재무적인 량(量) 중심으로 그 특징들을 나열한 것이므로 선택적인 상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적인 실패 등 일시적인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다뤄야 하며 의미 있는 “재무적 위치 인식”을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관과 생애단계와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해야 해야 한다.

#### ○ 가계재무단계의 활용

- 가계재무관리의 출발점과 관리 방향의 도구로 활용  
가계의 재무단계는 가계의 재무적 위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와 가계의 재무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가계의 재무단계를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뿐 아니라 계속되는 가계의 재무적 활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외부의 큰 환경 변화가 없는 한 향후 어느 단계로 위치하게 될 지 추측할 수 있다.
- 가계재무관리 활동의 전략적 방법을 찾는 도구로 활용  
그러나 무엇보다 “가계재무단계와 위치인식”의 활용성은 가계가 나아가고 싶은 단계에 위치할(positioning), 즉, 가계의 재무적 목표 달성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성장과 유지관리, 문제해결 활동에 대한 방법을 얻는데 용이하다.
-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시장 검증을 통하여 “가계재무 위치 진단”에서부터 재무적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처방프로그램 개발, “가계 재무 문제의 예측 및 문제 해결 방법 설계” 등으로 그 활용성을 넓일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플랜온 대표 유의선(02-585-1188, ceo@samplan.co.kr)

□ 퇴직연금통계 (2012. 2월 현재)

○ 적립금 규모

- 2012년 2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1 조 208 억원으로 전월말(49 조 9,851 억원) 대비 2.1% (1 조 357 억원) 증가
  - 기아자동차, 한국수자원공사, 씨게이트코리아, 한국오르본전장 등 대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한 데 기인
- 퇴직금 추계액(133.6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5.2%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47,456 개소로 전월말(141,989 개소) 대비 3.9% 증가
  - 총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9.8%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85,974	38,889	16,437	4,478	713	965	147,456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	6.7	23.3	32.9	43.4	52.3	86.2	9.8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국가와 국가를 나누는 경계인 국경의 의미가 나날이 퇴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 외국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벌써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와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마주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도 이에 발맞추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외국어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기술 발전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한국어 표현을 적절한 외국어로 바꿔 음성화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론적으로 약간의 시차를 감내할 용의가 있다면 어느 외국인과도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겠다. 곧, 우리는 외국어의 필요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줄어드는 두 상반적인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 외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를 실용성이 아닌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더 똑똑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모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하게 되면 언어와 관계없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에 적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치매 또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두뇌 안에서 한 언어가 다른 언어를 간섭하는 일이 발생해 어린이들의 학습 능력과 지능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실제로도 입증되기도 했다. 그러나 뒤따른 연구들이 이런 간섭의 폐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잇달아 밝히면서 이제는 외국어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 학문적인 통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모국어만을 사용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스페인의 학자들은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독일계 이탈리아인과

이탈리아어만을 사용하는 이탈리아인을 비교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두뇌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9년에 발표된 이탈리아 학자들의 연구는 7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은 두 가지 언

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기들과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키워지는 아기들을 비교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외국어의 위력은 노년기에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는 44명의 스페인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이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과 비례해서 치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찾아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 외국어와의 만남이 즐거웠던 경우보다 고통스러웠던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데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그 외국어가 바로 영어였고 불행히도 영어는 한국어와 모든 것이 반대인 언어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거의 모든 중요한 시험에서 이 너무도 낯선 언어가 당락을 가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일종의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다. 따라서 뜬금없는 제기된 외국어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감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구자들이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곧, 우리말이 아니면 되는 것이며 이에는 다행히도 언어 구조가 같은 일본어와 한자 문명권의 중국어가 들어있다. 곧, 일본어나 중국어만 공부해도 위에서 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欲致魚者先通水 (욕치어자선통수)**

**欲來(致)鳥者先樹木 (욕래조자선수목)**

물고기가 이르게 하고 싶거든 먼저 물길을 트고,  
새가 오게 하고 싶거든 먼저 나무를 심어라.

-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